

10 오피니언

사설

넓은 학사제도 바뀌야 새 교육과정 의미있다

최근 대학가의 화두는 4차산업 혁명과 융합교육이다. 대학의 역할은 더 이상 주입식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데에 있지 않다.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과 기술에 대응하고 새로운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대학의 최우선 과제가 됐다.

이를 위해 대학들은 앞다투어 신기술 분야와 융복합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중앙대, 한양대, 이화여대 등 대부분의 주요 대학들은 AI 관련 학과를 신설했다. 고려대는 올해 핵심교양에 '디지털 혁신과 인간'이라는 영역을 개설해 첨단기술과 인문학이 복합된 융합 교양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학과 중심의 기존 학사제도도 점차 허물어지고 있다. 건국대는 '드림학기제'를 통해 학생이 직접 설계한 활동을 수행해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

하고 있다. 우리학교도 이러한 흐름에 맞춰 인공지능 학과를 개설하고 마이크로디그리를 도입하는 등 융복합 교육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에는 학생 스스로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이수할 수 있는 '학생설계전공'을 추진 중이다. 전공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학생이 자유롭게 다양한 분야의 전공 수업을 선택해 학위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학교는 변화하는 시대에 맞추어 새로운 교육적 시도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의 노력이 과연 교육의 질 상승이라는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질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 현재 융복합 교육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성적평가' 방식이다. 많은 인문계열 학생들이 컴퓨터 공학, 실감미디어 등 신기술 분야의 학문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관심에만 그칠 뿐

실질적인 수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입문자 수준에 불과한 인문계열 학생들이 전공자와의 학점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로 신기술 분야 전공 이수를 기피하기 때문이다. 융복합 교육을 통해 다양한 학문을 접하는 데 있어에서도 학점 경쟁은 학생들의 참여를 저해하는 주요 요소 중 하나다.

학점이 취업과 대학원 입시 등에서 평가의 척도로 작동하고 있는 만큼 학생들은 성적평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학생들이 다양한 학문을 접하길 바란다면 이를 지원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출세우기식 성적평가 방식 대신 학생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새로운 성적평가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아무리 새로운 교육과정을 도입한들, 넓은 성적평가 제도가 유지된다면 '구색 맞추기'에 불과할 뿐이다.

서울대는 학점 부담을 경감시켜 융복합 학문 이수를 권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타 학과 전공 교과목 성적평가방법 선택제'를 도입했다. 타 학과의 수업을 들을 경우 학생들은 기존처럼 등급제를 선택하거나 P/F 제도와 같은 급락제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이처럼 우리학교도 새로운 교육적 흐름에 맞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새로운 교육과정과 넓은 학사 제도가 공존하는 혼란 속에서 교육적 성취는 아직 먼 이야기에 불과할 수 있다. 과거엔 관성적으로 제도를 유지하기에 급급했다면 이제 당연하게 여겨지는 체제를 개선하고 정비해야 할 때다. 미래 대학으로 전환할 적기는 지금이다. 더 이상 반쪽짜리 교육이 아닌 실질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학교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해본다.

세시봉

핫플의 역설

천민주 기자

cheonminju03@khu.ac.kr



6시간 11분. 한국인이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인 '인스타그램'을 한 달 동안 사용한 시간이다. 대략 깨어 있는 시간의 절반을 차지한 셈이다. 실제로 인스타그램은 한국인이 가장 오래 사용하는 SNS 앱으로 집계되기도 했다.

자신의 세상을 만들고 타인의 세상을 구경하는 인스타그램의 주요 이용층은 당연하게도 20·30세대였다.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이들의 인스타그램은 소위 '핫플레이스(핫플)'라고 불리는 장소를 찾는 용도로 쓰인다. '리단길' 혹은 '로수길'로 명명된 핫플을 방문한 이들은 그곳의 가장 화려한 모습만을 렌즈에 담고 공유한다. 덕분에 핫플을 명시한 해시태그는 더 많은 사람을 명소로 인도하기도 한다.

화려한 겉모습의 이면에는 그 동네의 속사정이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 동네의 이야기에는 관심이 없다. 젊은 세대들에게 핫플로 지목된 '망리단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리단길'이라는 이름은 망원동을 '핫플'이라는 해시태그 속으로 가뒤퍼렸다. 마을의 특색을 모조리 죽인 셈이다. 유입 인구의 증가로 인한 교통 문제와 쓰레기 문제 또한 주민들이 오롯이 감당하게 되면서 이들의 평범한 일상도 침해당했다.

주민과 세입자를 자본의 대상으로 보는 젠트리피케이션의 그들은 점차 짙어졌다. 오랫동안 터를 지키던 가게들은 유명세 이후 임대료 상승으로 모두 문을 닫았다. 동네 인근의 상업화로 높아지는 임대료를 견딜 수가 없었던 탓이다. 실제로 마을 공동체의 자치 활동 무대이자 공동 육아의 장으로서 기능했던 망원동의 '작은나무 카페'는 새 건물주의 수익 사업에 밀려나고 말았다.

사람들까지도 갈아치우는 이러한 정화사업은 과연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 무리한 갈아엎기의 방법으로는 '재생'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다. 상생이 고려되는 재개발이 필요하다. 지역 공동체 문화의 위협을 막는 행정적 지원과 정책적 보조가 절실하다. 이제는 우리의 삶이 녹아든 공간의 가치와 특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철학이 도시 재생에 깃들어야 할 때이다.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 석면의 위험

침묵의 살인자

황보종덕 기자

whd9223@khu.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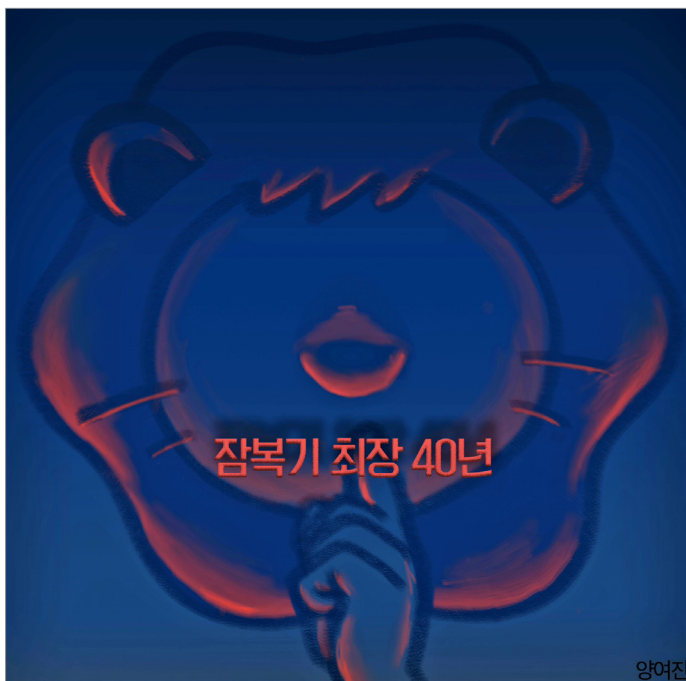
'돌에서 뽑아낸 실' 석면은 60~70년대 근대화 시기 '기적의 물질'로 불렸다. 불에 타지도 썩지도 않아 모든 방면에 활용 가능한 만능 물질이었다. 당시 석면회사 노동자들은 석면을 마치 내 몸 일부처럼 아꼈고 심지어는 집에 가져다 구경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땐 석면이 죽음을 불러올 수 있을 만큼 위험한 물질이란 걸 누구도 알지 못했다.

석면의 잠복기는 최장 40년으로 전해진다. 약 10년 전부터 사망사례가 속출하며 공포의 실체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석면 섬유 한 가닥의 굵기는 머리카락의 5,000분의 1로 몸속에 침투하면 폐흉막을 경화하고 막을 손상해 폐를 벌집처럼 만든다. 이 과정에서 전조 증상이 없다. 그렇게 공장에서 청춘을 불사른 가장들은 이유도 모

른 채 세상을 떠났다.

이는 비단 노동자만의 일이 아니다. 석면의 주된 용도는 건축자재다. "지금까지의 석면 사망 수치는 빙산의 일각"이란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 의견이다. 현재 우리가 숨 쉬는 공간의 공기에도 언제든지 석면이 존재할 수 있다. 지난 2011년 석면피해구제법 제정 이후 2021년 말 기준 석면 질환 피해자는 6,882명이며, 장례비 등 피해 보상 금액은 1,185억에 달한다. 우리는 누구든 석면의 공포를 피해갈 수 없다. 석면은 우리 일상 공간 곳곳에 만연해있다. 누구든 예외란 없다.

이젠 관리를 넘어 완전한 제거에 다가가야 한다. 당장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학 등 건축물에 남은 석면을 해체하고 비산 여부를 지속 확인해야 한다. 또 석면 존재 여부와 위험성을 고지하는 등 건축물 이용자의 알권리도 충족해야 한다. 더 이상 비상적인 과거를 되풀이할 순 없다. 석면 위험의 완전한 차단만이 무고한 생명의 희생을 막을 수 있다.



만평 죽음의 시한폭탄

교시

문화세계의 창조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

발행인

한균태

편집인

남윤재

편집장

김경민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서천동)

Tel 031-201-3230~2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khunews

이메일 khunews@khu.ac.kr

제작

청솔디자인 | 인쇄

옴니퍼매디